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문학치료 연구

오 정 미*

<차례>

1. 서론
2. 다문화가정 대상의 문학치료 연구현황과 이주민 서사
3. 문학치료로 접근한 이주민 서사: '나와 그것'과 '나와 너'
4. 결론

1. 서론

문학치료는 건강한 자기서사 회복을 목표로 인간관계에서 길을 찾는다. 정운채는 인간관계의 주체가 어떤 입장으로 그 인간관계를 바라보고 또 운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주체가 자녀의 입장일 경우에는 자녀서사, 남녀의 입장일 때에는 남녀서사, 부부의 입장일 때에는 부부서사, 부모의 입장일 때에는 부모서사라 하였다.¹⁾ 결국 문학치료의 핵심은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와 답을 찾는 것이며, 인간관계를 하나의 서사로 본 지점이 기존의 심리치료와 다른 문학치료만의 독자적 특성일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문학치료 연구

*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학술연구 교수

1)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9,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255면.

에서도 인간관계에 집중한 4가지 기초서사영역은 유용한 이론으로써 적용되어왔다. 2010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까지 발표된 총 9편의 연구에서는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한 4개의 기초서사(자녀서사·남녀서사·부부서사·부모서사)가 직·간접적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분석하고 치료하는 데 적용되어왔고,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었다.²⁾ 문학치료의 근간인 인간관계가 다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에서도 똑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더욱 빛을 발휘할 수밖에 없기에 중요한 이론으로써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다문화’라는 용어에 주목하여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인간관계에 대하여 좀 더 근원적인 문제부터 천착해보고자 한다. 말하자면, 문학치료의 4개의 기초서사가 보편적 인간관계 속에서 견인한 자기서사라면 ‘다문화’라는 용어로 규정된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자기서사를 신동훈이 언급한 ‘인생 운용의 원리와 맥락’ 아래서 접근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세상 만물에 질서가 있고 예측 가능한 동선이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공통의 존재원리와 속성이 있고 유형성 내지 정형성을 지니는 삶의 동선이 있는 터다. 제각각으로 불투명해 보이는 사람들의 삶에서 유효한 ‘인생 운용의 원리와 맥락’을 찾는 일은 자기서사 분석의 기본 과업을 이룬다.³⁾

‘다문화’ 속에는 이미 다문화와 함께 비(非)다문화가 함축되어 있고, 다름과 같은 유형성 내지 정형성이 전제되어 있다. 그 다름은 문학치료에서 강조한 인간관계를 토대로 했고, 특히,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은 다름이라는 유형성에서 발현되는 자기서사를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즉 자녀서사·남녀서사·부부서사·부모서사와 같은 보편적 서사영역 외에 다문화로 규정된 공동체 속에서 발현되는 유형성 내지 정형성을 지닌 서사영역이 다문

2) 논의의 전개를 위해 9편의 선행연구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사 정리는 2장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3) 신동훈, 「문학치료를 위한 서사 분석 요소와 체계 연구」, 『문학치료연구』 49, 한국문학치료학회, 2018, 12면.

화가정 구성원에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낮은 자존감, 부적응과 같은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이기 전에 이주민과 소수자로서의 유형성과 정형성 속에서 한국사회와 관계맺기를 하며 나타나는 심리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심리 문제를 내담자의 개별적인 부부·남녀·자녀·부모 서사의 문제로 진단하기 전에 한국사회 속에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겪는 심리 문제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내담자의 생애에서 발견되는 개별적인 인간관계 문제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정 구성원은 한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와 갈등을 마주하는 내담자이기에 그들의 심리 문제를 다문화라는 공동체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개별적 인간관계뿐 아니라 공동체와 나와의 관계도 문학치료에서의 인간관계 범주에 속하기에 한국사회와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관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나와 어머니의 관계, 나와 배우자의 관계만큼 나와 내가 속한 사회와의 관계 역시도 나의 건강한 자기서사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인간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의 ‘나와 너’의 관계에 천착하고자, 이 글에서는 ‘나와 너’ 그리고 ‘나와 그것’이라는 인간의 관계론을 개진한 철학자 마틴 부버(Martin Buber, 1878-1965)⁴⁾의 논의를 통해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가진 심리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부버는 인간의 관계를 크게 두 가지의 형태, 진정한 관계 맺음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정의한 바 있다.

‘나와 너’는 긴밀한 인격적 관계를 의미하지만,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그것’은 비인격적 존재로 나의 수단일 뿐이다.⁵⁾

4) 마틴 부버(Martin Buber)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유대인 철학자로, 『종교의 철학』(1931), 『대화』(1932), 『단독자에 대한 물음』(1936), 『대화의 삶』(1948) 등을 통해 인간관계와 소통에 관한 철학적 물음에 대한 저서를 발표하였고, 이 중에서도 『나와 너』(1923)는 유럽 대륙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며 프로이트, 베르자예프, 만하임, 데일리, 니버 같은 철학자와 교육학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전달하였다.

5) 마틴 부버(Martin Buber), 표재명 옮김, 『나와 너』, 문예출판사, 2001, 192면.

‘나와 너’ 그리고 ‘나와 그것’으로 결정짓는 부버의 인간 관계론은 인간관계의 주체가 어떠한 입장으로 그 인간관계를 바라보고 또 운영하는가에 주목한 문학치료와 상통한다. 특히, 이주민과 소수자 입장의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게는 좀 더 근원적인 자기서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통찰하게 해주는 단서가 된다.

따라서 한국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가진 자기서사를 구체화한 후 ‘나와 너’ 그리고 ‘나와 그것’의 관계를 통해 문학치료적 접근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때, 삶의 서사에서 보여주는 인간관계에 따라 ‘나’, ‘너’, ‘그것’의 존재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만 한다. 영어의 ‘I’라는 개념의 ‘나’가 아니고 주체로서의 ‘나’이고, ‘너’와 ‘그것’은 객체로서의 ‘나’인 것이다. 예컨대 결혼이주여성이 누구와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그녀는 ‘나’일 수도 있지만 객체로서의 존재인 ‘너’ 혹은 ‘그것’일 수 있다. 그래서 결혼이주여성뿐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주요 구성원인 남편과 자녀들을 포함한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겪는 심리 문제를 ‘나’, ‘너’, ‘그것’의 관계 속에서 고찰한 후 최종적으로 ‘나와 너’의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한 문학치료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다문화가정 대상의 문학치료 연구현황과 이주민 서사

2.1.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문학치료 연구현황

다문화가정이란 서로 다른 국적의 남녀가 만나 구성한 가정을 의미한다. 미국 국적의 남성과 한국국적의 여성이 구성한 가정처럼 두 개 국적의 남녀가 이룬 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은 사전적 개념보다 일종의 사회문화적 개념이 더 보편적 개념처럼 통용되고 있다. 여기서 사회문화적 개념 속 다문화가정이란 동남아시아계 결혼이주여성

과 한국남성이 구성한 가정을 의미하고 본격적으로 다문화사회가 된 지 10년이 넘는 최근에는 부부와 함께 자녀들까지 포함해 다문화가정이라 규정하고 있다.

문학치료에서도 사회문화적 개념 속 다문화가정, 즉, 동남아시아계 결혼이주여성과 한국 남편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한 다문화가정 대상의 문학치료 연구는 총 9편으로 내담자는 동아시아계 결혼이주여성과 한국 남편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자녀이다. 구체적인 연구현황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문학치료 연구현황⁶⁾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우울증에 대한 서사적 이해와 문학치료 방안 성정희·박재인, 통일인문학 (2010)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배우자에게 나타나는 편집증적 문제와 설화를 활용한 문학치료 방안 박재인, 다문화콘텐츠연구 (2010)
3	<만복사저포기>를 활용한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교육 방안 -문학치료적 효과를 중심으로- 신영미, 한국문예비평연구 (2011)
4	결혼 이주 여성의 자아존중감 강화를 위한 <내 복에 산다>형 설화의 문학치료적 의미: 베트남 설화집 '영남척괴열전' 소재 <일야택전>과 <서과전>을 중심으로 하은하, 구비문학연구 (2011)
5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문학치료 활동의 실제 : <바리공주>, <옥상의 민들레꽃>을 중심으로 신영미,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6	<온달설화>의 서사적 구조를 활용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문학치료 방안 탐색 김영순·황해영,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7	다문화 설화작품과 현장적 소통방식의 문학치료학적 활용가능성 : 남녀·부부서사를 대상으로 김민수, 문학치료연구 (2018)
8	부모와의 관계 맺기 방식이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그

문학치료적 의미	
김정희, 문학치료연구 (2019)	
9	설화 <은혜 깊은 까치>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우울에 대한 문학치료 방안 연구
박정은, 인문사회 21 (2020)	

다문화가정의 주요 구성원은 부부이다. 심리치료와 관련한 연구현황을 보면, 부부 중에서도 한국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결혼이주여성이 심리치료가 필요한 주 내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병리적으로는 주로 우울증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낮은 자존감과 정체성 확보 등이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심리치료의 공통된 내용이었다.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문학치료 연구에서도 2편을 제외한 모든 연구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심리치료 연구에서 부부관계, 부부갈등을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의

- 6) ① 성정희·박재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우울증에 대한 서사적 이해와 문학치료 방안」, 『통일인문학』 49,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10.
- ② 박재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배우자에게 나타나는 편집증적 문제와 설화를 활용한 문학치료 방안」, 『다문화콘텐츠연구』 4-9,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0.
- ③ 신영미, 「〈만복사저포기〉를 활용한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교육 방안 -문학치료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3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 ④ 하은하, 「결혼 이주 여성의 자아존중감 강화를 위한 <내 복에 산다>형 설화의 문학치료적 의미: 베트남 설화집 ‘영남척괴열전’ 소재 <일야택전>과 <서과전>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33, 한국구비문학학회, 2011.
- ⑤ 신영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문학치료 활동의 실제 : <바리공주>, <옥상의 민들레꽃>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⑥ 김영순·황해영, 「<온달설화>의 서사적 구조를 활용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문학치료 방안 탐색」,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6,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 ⑦ 김민수, 「다문화 설화작품과 현장적 소통방식의 문학치료학적 활용가능성 : 남녀·부부서사를 대상으로」, 『문학치료연구』 49, 한국문학치료학회, 2018.
- ⑧ 김정희, 「부모와의 관계 맺기 방식이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그 문학치료적 의미」, 『문학치료연구』 51, 한국문학치료학회, 2019.
- ⑨ 박정은, 「설화 <은혜 깊은 까치>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우울에 대한 문학치료 방안 연구」, 『인문사회 21』 11-3,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0.

심리치료를 모색한 바와 같이 문학치료 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자기서사의 회복을 위해 주로 부부서사와 남녀서사 속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성정희·박재인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우울증에 대한 서사적 이해와 문학치료 방안」을 보면, 문학치료학에서 부부관계를 다룬 작품 <곰나루>, <구렁덩덩신선비>, <호랑이 눈썹>에 특별히 주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증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증이 부부관계에서 발현된다 보고 건강한 자기서사를 위해 부부서사를 바탕으로 한 작품을 선정한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연구로 신영미의 「<만복사저포기>를 활용한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교육 방안 -문학치료적 효과를 중심으로-」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직접 부부서사나 남녀서사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작품으로 <만복사저포기>를 선정한 배경이 결혼이야기와 배필찾기라는 점과 남녀 사랑의 공감을 문학치료의 효과로 제시한 연구결과를 볼 때, 앞선 연구와 마찬가지로 부부서사와 남녀서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문학치료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해에 하은하의 「결혼 이주 여성의 자아존중감 강화를 위한 '내 복에 산다'형 설화의 문학치료적 의미 -베트남 설화집 '영남척괴열전' 소재 <일야택전>과 <서과전>을 중심으로」가 발표되었다. 문학치료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발표된 3번째 논문이지만 그 지향점은 다르다. 부부서사와 남녀서사 아래 문학치료 방향을 모색한 선행연구와 달리 하은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 강화에 목표를 두고, 이를 위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내복에 산다>형 설화를 작품서사로 선정하였다.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인간관계를 이주민과 소수자라는 사회·문화적 특수성 속에서 고찰하고자 한 본 연구와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다음으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문학치료의 실제에 관한 석사학위논문이 있다. 신영미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문학치료 활동의 실제 : <바리공주>, <옥상의 민들레꽃>을 중심으로」에서 7인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적응교육, 정체성교육, 공동체의식 교육을 실천하고자 문학치료 활동을 제안하고 시행하였다. 부부서사와 남녀서사가 연구에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연구자가 시행한 활동지를 통해 부부서사와 남녀서사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부터 시작한 다문화가정 구성원 대상의 문학치료 연구는 2012년에 신영미의 연구를 끝으로 휴식기를 가진다. 6년의 공백 후에 2018년부터 김영순·황해영의 연구와 김민수의 연구를 시작으로 다시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문학치료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김영순·황해영이 발표한 「<온달설화>의 서사적 구조를 활용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문학치료 방안 탐색」에서는 문학치료의 4개의 서사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온달설화를 선정한 배경과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남녀서사와 부부서사가 연구와 깊은 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김민수의 「다문화 설화작품과 현장적 소통방식의 문학치료학적 활용가능성 : 남녀·부부서사를 대상으로」는 이주민이 구술한 설화가 가진 문학치료학적 가능성을 타진한 연구이다. 사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문학치료 연구가 아닌 문학치료를 위한 작품서사를 확장하는 연구이다. 연구 방향이 다르지만 이주민이 구술한 설화중에서도 남녀서사와 부부서사에 초점을 맞춘 다문화 설화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을 염두에 둔 연구라 판단되어 연구현황 속에서 함께 살폈다. 마지막으로 김정희가 「부모와의 관계 맺기 방식이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그 문학치료적 의미」를 2019년에 발표하였다. 태국과 베트남에서 온 두 명의 결혼이주여성의 이야기를 생애담차원으로 분석한 후 그녀들의 삶에 자녀서사가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의 차이로 인해 현재의 그녀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점을 두 명의 결혼이주여성을 통해 확인시킨 연구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문학치료 연구에서 자녀서사에 주안점을 둔 첫 연구이다.

아내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심리치료와 프로그램에 이어 배우자인 한국국적의 남편에 대한 심리치료 연구도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가정 대상의 초기 연구에 결혼이주여성이 주 내담자였다면 차츰 배우자인 남편의 심리치료 연구도 부부관계 증진 등을 목표로 접근되기 시작한 것이다. 문학치료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을 대상으로 한 박재인의 연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배우자에게 나타나는 편집증적 문제와 설화를 활용한 문학치료 방안이 발표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인 한국 남편의 편집증적 문제를 문학치료적으로 접근한 연구로, 다문화가정의 남편을 대상으로 한 문학치료에서의 최초의 연구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평범한 다수의 남편들이 겪는 심리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결혼이주여성만큼 한국 국적의 남편들은 다문화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심리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한국 가정의 가장보다도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측면이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처럼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남편도 부부갈등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편집증, 폭력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심리 문제를 가진 다문화가정의 남편들보다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심리 문제를 겪는 다수의 평범한 다문화가정의 남편들을 위한 문학치료 연구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다문화가정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즉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대상이 확장되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06년에 7,756명이었던 다문화학생 수가 10년간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9년에 137,225명이 되었다. 특히, 2020년에는 비다문화가정까지 포함한 전체 학생 수가 2.1% 감소한 데 반해 다문화 학생 수는 오히려 전년 대비 7.4%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러한 상황은 심리치료가 필요한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도 무방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유창하지 못한 한국어, 외모의 다름과 같은 이유로 또래 집단의 따돌림과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일반 학생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에 문학치료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우울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박정은이 발표한 「설화 <은혜 갠 까치>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우울에 대한 문학치료 방안 연구」는 다문화가정 배경의 특수성, 아동의 특수성, 우울감 치료의 특수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 속에서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문학치료 방안을 모색한 연구였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본격적인 문학치료 연구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작품서사로 선정한 설화에 대한 분석과 적용이 연구자가 언급한 세 가지 측면에 부합하는지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9편의 다문화가정 구성원 대상의 문학치료 연구는 애초에 문학치료가 지향한 바대로 건강한 자기서사를 모색하고 있다. 우울증 치료, 편집증 치료, 자존감 향상과 같은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중국에는 건강한 자기서사 회복이 공통된 치료 방향이라 하겠다. 그런데 건강한 자기서사 회복을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자기서사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진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차원에서 다문화라는 공동체 속에서 운용되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특수한 자기서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2.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이주민 서사

인류의 역사상 다문화사회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은 없었지만, 최근처럼 ‘다문화’가 사회적 용어로 자리를 잡고 시대를 점령한 적은 없었다. 다문화사회를 비롯하여 다문화교육, 다문화정책, 다문화가정 등 여기저기에서 다문화는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변화를 이끄는 용어가 되었고, 다문화라는 용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회·문화적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문화라는 용어에서 파생되는 사회·문화적 현상은 무엇일까. 사전적 개념으로 보면 다문화(multiple cultures)란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의 문화가 혼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달되는 실체적 개념은 동남아시아, 이주민,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가난, 불법체류 등이고 그 안에서 차별, 편견, 선입견 등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만난다. 그리고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타자’가 있고, ‘타자’에는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주민’이 존재한다. 즉 거창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이 다문화는 곧 이주민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주민을 총칭하는 ‘다문화인’ 나아가 ‘다문화가정’에는 ‘나’와 다른 ‘이주민’이 내포되어 있고, 이 사실을 생활에서 깨달은 대다수의 이주민들은 ‘다문화’라는 단어를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못하

고 있다. 심지어 다문화가정이란 용어를 새롭게 만들자라는 주장도 제기될 만큼 다문화라는 용어에는 수많은 부정적 현상이 포함되어 있다. 그만큼 다문화사회는 그 어느 사회보다도 문학치료가 주목한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아파하고 있으며 인간관계를 통해 자기서사를 회복해야 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건강한 자기서사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 그들이 가진 이주민 서사를 이해해야 한다. 이주민 서사란 사회 속에서 자신을 타자 또는 소수자로 인식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⁷⁾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모두 경증만 다를 뿐 공통으로 이주민 서사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학치료에서 접근해야 할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가진 이주민 서사란 다음과 같다.

① 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로 편입한 이주민이다. 다문화가정을 구축한 당사자이기도 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주민 서사를 가지고 있다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이 가진 이주민 서사가 일상에서 툭툭 튀어나와 그녀들의 삶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은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제가 임신 팔 개월 때, 임신 팔 개월 때 버스를 탔는데 그때 노약자석하고 임신 부석 있었잖아요. 제가 올라갔는데 그 좌석 다른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그분 뒤에 기다렸어요. 내리시면 제가 앉겠다고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렸는데 그분 일어나서, 일어나서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버스 안에는 사람 하도 많아서 배가 나와서 빨리 빨리 올라가지 못하고 그 다른 분이 올라오신 분은 제가 딱 봐도 한 여자분이신데 나이가 연세가 한 사십 초반 정도 돼요, 그분 바로 앉으셨어

7) 이주민 서사는 이주민에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주체의 내면에 타자, 소수자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이주민 서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마치,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만 부모서사와 자녀서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요, 저는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그분 뒤에 저는 배가 이렇게 나와서 빨리 못 갔죠. 그래서 가서, “네.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저 임신부입니다.” 인사는 했었는데 그분은 저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응. 왜?” 근데 제가 지금 그다음에 생각해 보면 그분도 그거 노약자석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은 저보고, “아. 외국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거는 그 말은 상처받았어요. 뒤에 어떤 아가씨가 그 얘기 듣고 저한테 양보해주셨어요. 양보해줬어요. 저는 그분한테도 고맙기도 하지만 부끄럽기도 해요. 왜냐면 다 버스 안에 다 저를 쳐다보고 좀 부끄러웠어요. 근데 왜 뭐 제가 실수, 집에 가서 진짜 울고 싶었어요. (중략) 근데 되게 오래가요. 버스는, 그다음부터 버스 타고 다니면 그 노약자석 보면 늘 그 그 사건 떠올라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 차 끌고 다니지만 가끔씩 버스 탈 때도 노약자석을 보면 저는 앉지 않아요. 진짜로. 저는 그냥 옆에 사람 없어도 서 있어요. 옆에서. 지금까지도 몇 년 지났죠. 칠팔 년 지났는데, 그래도 늘 상처 떠오르고 그래요.⁸⁾

임산부였던 명 제보자가 아주머니에게 임신부석 양보를 요청했지만 그녀의 요청은 이국적인 외모와 서툰 한국어 때문에 묵살된다. 아주머니의 태도로 인해 버스 안의 명 제보자는 어느새 배려받아야 할 임신부에서 한국문화에 낯선 이주민일 뿐이었고, 아주머니의 태도는 명 제보자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그 인간관계를 통해 나의 존재적 위치를 확인하곤 한다. 시인 김춘수의 ‘꽃’처럼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 줄 때 꽃이 되기도 하고 그 무엇인가가 되기도 한다. 결혼이주여성들도 누군가의 아내이고 어머니이고, 누군가의 꽃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종종 이주민으로 불리며 이주민의 존재가 된다. 임신부와 같은 개인의 특성, 직업, 이주 배경 그리고 한국에 거주한 세월조차도 한국사회와의 관계 맺기에서 중요하지 않다. 한국사회와의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름은 이주민이

8) 베트남에서 이주하여 다문화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명 제보자의 경험담이다. 충청북도 청주에서 만난 명 제보자는 한국에서 제일 힘들었던 경험에 대하여 임신부 시절 버스에서 일어났던 일을 구술하였다. 연구자가 예상한 출산, 시집살이 등과는 거리가 먼 일상의 사소한 에피소드였다. 연구자가 만났던 결혼이주여성의 다수가 명 제보자처럼 평범한 일상에서 경험했던 사소한 사건을 오랜 시간 동안 잊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속에서 이주민 서사를 경험하고 있었다.

고, 그러다 보니 몇 제보자와 같은 결혼이주여성에게는 강력한 이주민 서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주민 서사는 가정 밖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주민 서사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내에서도 끊임없이 작동한다. 그동안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문학치료연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본 인간관계가 부부관계였다.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사회로 편입한 이주민이기에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문학치료에서 부부서사를 통해 건강한 자기서사를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부부관계에는 부부서사뿐 아니라 이주민 서사가 작동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마주한 한국 남편은 결혼으로 맺어진 배우자이기 전에 작은 한국사회이고, 부부 사이에는 이주민과 정주민의 관계가 존재한다. 게다가 폭력적인 남편들의 대부분은 아내를 동등한 부부관계로 인정하기보다 외국에서 온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존재, 즉 소수자로서의 이주민으로 대우하고, 이러한 부부관계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이주민 서사를 경험하며 낮은 자존감과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심리 문제를 가지게 된다. 또한 시부모를 비롯한 시집식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주민 서사가 강화되기도 한다.

② 한국 남편

결혼이주성과 함께 다문화가정을 구성하는 주축은 한국 남편이다. 한국 남편은 한국국적과 가정 내의 위치로 볼 때, 이주민 서사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한국 남편이 겪는 여러 유형의 갈등을 살펴보면, 그들도 결혼이주여성처럼 이주민 서사를 경험하며, 그 속에서 상처를 입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남편이 가진 이주민 서사는 대부분 가정 밖에서 나타난다. 이주민 서사가 강하게 작동할 때는 한국 남편이 다문화가정의 가장 혹은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로서 한국사회와 대면할 때이다. 개별적 특성이 무시된 채 이주민으로서만 정체성을 인정받는 결혼이주여성처럼 한국 남편들도 다문화가정의 가장과 배우자로서 한국사회와 관계맺기를 하면서 이주민 서사가 발생

한다. 방송과 미디어에서 생산한 가난, 무능력, 농촌, 노총각, 폭력과 같은 이미지가 한국 남편들의 개별적 특성을 외면한 채 한국사회와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이주민 서사를 생성케 한 것이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국제결혼을 택한 한국 남편들도 가정을 통해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었지만 다문화가정이라는 프레임을 한국 남편들을 부정적인 이미지에 가두었고, 결국, 한국 남편들은 한국사회의 소수자 입장에서 이주민 서사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주민 서사는 아내에 대한 원망과 무시 등으로 되돌아갔고 부부관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남편들이 한국사회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이주민 서사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더욱 강하가 발동한다. 가족해체의 경험을 한 다문화가정 남편들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남편들은 부부간의 갈등, 아내의 가출, 무단 자녀 탈취, 이혼소송 등 가족해체를 결정짓는 순간까지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없음을 호소한다고 한다.⁹⁾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여성부와 같은 기관에서 도움을 받는 것과 달리 다문화가정의 한국 남편들은 한국사회에서 정당한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외면당하며 자신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토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들은 한국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타자 혹은 소수자라 생각하는 이주민의 서사를 경험한다. 물론,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이 좀 더 한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임에는 분명하지만, 다문화가정 해체의 책임을 한국 남편에게 모두 전가하는 사회적 풍토는 변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 남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주민 서사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이것은 다시 다문화가정을 한국사회에서 분리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장의 책무를 다 하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다수의 남편들에게조차 드리워지는 타자, 소수자와 같은 이주민 서사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남편들이 가진 이주민 서사도 문학치료에서 반드시 접근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9) 장운정,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가족해체 경험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11-1,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7, 97면.

② 다문화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심리연구에서는 10년 전만해도, ‘자녀’라는 용어와 함께 ‘아동’이 자주 등장하였고 언어발달과 심리 사회적 적응의 문제가 주요 분석내용이었다.¹⁰⁾ 그 후 다문화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연구에 등장하면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학교폭력 등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연구의 주요 키워드가 되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연구에서 또 하나의 주요 키워드가 ‘이중문화’였다.¹¹⁾ 이중문화와 관련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연구는 대부분이 그들의 심리문제와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논지를 펼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정주민이지만 동시에 이주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이중문화가 주요한 키워드로 분석된 것인데, 사실, 이중문화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이주민의 서사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한국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정주민이지만 다른 외모, 어눌한 한국어 무엇보다 다문화가정이라는 환경 때문에 또래 집단으로부터 배척당하는 상황과 마주한다. 분명, 한국의 청소년이지만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다문화라는 프레임 속에서 위축되고 상처받으며 자연스럽게 이주민 서사를 가지며 살아가는 또 다른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가진 이주민 서사는 한국사회와의 관계에서 형성되었고, 그들의 삶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래서 자칫, 이주민 서사를 부정적인 자기서사로 오인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주민 서사는 부정적인 자기서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주민 서사가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심리 문제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

10) 박주희·남지숙,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과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청소년연구』 5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변미희·정은미·정희정·이송이, 「다문화가족 아동의 심리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8-2, 한국부모교육학회, 2011.

11) 손한결,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중단적 안정성과 상호 영향」, 『청소년학연구』 27-12, 한국청소년학회, 2020.
유창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 유형」, 『다문화사회연구』 13-3,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0.

그리고 이주민 서사가 한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파생된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 한국 남편,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이주민 서사를 살펴본 것이다.

사실, 이주민 서사는 자기 자신을 집단 공동체에서 타자 혹은 소수자로 느낀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기서사이고 그 자체가 우리 삶에 부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주지해야만 한다. 문제는 이주민 서사가 아니라 이주민 서사를 한정된 영역에 고착화하여 운영하거나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경우이다. 조은상의 이론에 의하면 내담자의 자기서사가 한정된 영역에 고착화되어 있는 경우와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건강하지 못한 자기서사’인 것인데,¹²⁾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주민 서사도 어떠한 방식으로 내 삶에서 운용하는가에 따라 건강한 혹은 건강하지 못한 자기서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가진 심리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이 가진 이주민 서사를 이해하고 그들의 건강하지 못한 이주민 서사를 건강한 이주민 서사로 변화하도록 돕는 지점이 문학치료에서의 몫일 것이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문학치료로 접근할 건강하지 못한 이주민 서사와 건강한 이주민 서사가 무엇인지를 설화를 통해 제시하여 그 의미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3. 문학치료로 접근한 이주민 서사: ‘나와 그것’과 ‘나와 너’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성이다. 관계에는 이미 인간과 인간 사이에 상호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관계에서 발현되는 상호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소통의 방식과 진정성과 같은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호성 속에서 ‘나와 그것’ 그리고 ‘나와 너’는

12) 조은상, 「문학치료에서 자기이해의 필요성과 방법」, 『문학치료연구』 45, 한국문학치료학회, 2017, 37면.

상징적 표현으로 인간관계를 정리한 철학자 마틴 부버가 있다.

‘너’라고 말할 때는 짝말 ‘나-너’의 ‘나’도 함께 말해진다.
‘그것’이라고 말할 때는 짝말 ‘나-그것’의 ‘나’도 함께 말해진다.
근원어 ‘나-너’는 온 존재를 기울여서만 말할 수 있다.
근원어 ‘나-그것’은 결코 온 존재를 기울여서 말할 수 없다.¹³⁾

‘너’와 ‘그것’이라는 상대방이 존재할 때 ‘나’가 존재한다는 부버의 인간관계론은 상호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온 존재를 기울여서 말할 수 있다와 없과의 의미 차이는 결국 관계의 진정성을 의미한다. 그 관계의 진정성에 따라 ‘나’와 ‘그것’ 그리고 ‘너’의 삶의 모습이 모두 달라진다는 것인데, 관계의 양상에 따라 건강하지 못한 이주민 서사와 건강한 이주민 서사를 확인할 수 있다.

3.1. 설화 <막산이>로 본 ‘나와 그것’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며, 이용과 목적 즉 수단을 위한 도구의 관계이다. 부버의 ‘나와 그것’의 관계를 정리한 김진웅의 연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그것’은 각자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관계일 뿐이며,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그것’과 마주하는 대상적 소통관계에 불과하다.
둘째, ‘나-그것’은 이용과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소통관계이다.
셋째, ‘나-그것’은 자연과학적 질서에서와 같이 ‘나-그것’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무제한적으로 지배하는 세계로 이해된다.
넷째, ‘나-그것’ 관계는 분리되고 소외적 성격의 소통관계이다.
다섯째, ‘나-그것’은 고립, 단절, 중지, 결여를 유발하는 대상적 소통이다.¹⁴⁾

13) 마틴 부버(Martin Buber), 표재명 옮김, 『나와 너』, 문예출판사, 2001, 8면.

14) 김진웅, 「마틴 부버의 커뮤니케이션철학: ‘실체론’을 넘어 ‘관계론’으로」, 『커뮤니케

‘나와 그것’의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인간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일 수 없기에 때로는 ‘나와 그것’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기도 한다. 사회, 직장, 학교 등 어디에서든지 ‘나와 그것’의 인간관계는 존재하고, 우리가 ‘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되기도 하며 인간관계의 하나일 뿐이다. 다만, 문제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나의 삶을 지배하는 자기서사가 된다면 그때는 치료가 필요하다. 자기서사로서의 ‘나와 그것’의 관계란 건강하지 못한 의미의 이주민 서사이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나와 그것’의 이주민 서사를 자기서사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나와 그것’의 관계를 보여주는 설화 <막산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설화 <막산이>는 제주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다.¹⁵⁾ 많은 편수가 전승되지 않았지만, 대식가였던 종의 이야기로 그가 죽은 장소까지 ‘막산이 구석’이라 구체화되어 제주도에서 전승되고 있다. 구체적인 서사는 다음과 같다.

- 1) 제주도 강침의 종인 장사 ‘막산이’가 살고 있었다.
- 2) 강침이 산에 논을 만들고자 막산이에게 쉰 명의 일꾼을 모아오라고 시켰다.
- 3) 막산이가 혼자 쉰 명분의 밥을 다 먹고 쉰 명분의 일을 다 하였다.
- 4) 강침은 막산이에게 서른 명분의 밥을 주며, “너 하나 배불리 먹게 할 능력이 없다며 노비문서를 주고 떠나라.”고 하였다.
- 5) 쫓겨난 막산이는 소와 말을 기르는 곳으로 가서 일을 하였다.
- 6) 배고픈 막산이가 소와 말을 잡아 먹었다.
- 7) 그곳 사람들도 막산이를 감당할 수 없어 막산이를 죽이고 만다.
- 8) 막산이가 죽은 곳을 막산이 구석이라고 한다.¹⁶⁾

이선학 연구』 24-1,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16, 67~68면.

15) 『한국구비문학대계』 9-3, 막산이, 27-32면.

16) 오정미, 「설화에 대한 다문화적 접근과 문화교육」,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30면.

막산이는 주변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었다. 대식가이고 50명분의 일을 할 만큼 힘이 센 장사였던 막산이는 짐작컨대, 거구의 외모를 가진 남다른 존재였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막산이는 장사로서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언제나 ‘종’이나 ‘일꾼’이 되어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했다.¹⁷⁾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막산이는 부버의 ‘나와 그것’의 ‘그것’이었던 것이다. 부버의 이론을 빌려 표현하자면, 이용과 목적 즉 수단을 위한 도구의 관계 그리고 분리되고 소외적 성격의 소통만을 하는 존재가 막산이었던 것이다.

문학치료의 관점에서 보면 막산이는 대식가여서 죽은 것이 아니다. 막산이는 대식가일 뿐 아니라 그만큼의 노동력을 가진 존재로 능력을 가진 존재였다. 하지만 막산이는 늘 종이나 일꾼의 관계로 사람들과 관계맺기를 하였고, 스스로를 집단에 속하지 못하는 타자로 만들었다. 자신을 종과 일꾼으로서 운용하며 스스로를 ‘너’가 아닌 ‘그것’으로 만들었던 막산이의 자기서사가 결국 그를 죽게 만든 것이다. 설화 <막산이>를 통해 ‘나와 그것’이라는 건강하지 못한 이주민 서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서사 운영의 주체가 막산이기에 죽음의 원인을 막산이에게서 찾은 것이지만, 정확하게는 막산이와 함께 인간관계를 맺은 강침과 주변 사람들에게서 죽음의 이유를 물을 수 있다. 막산이의 죽음은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타자이고 동시에 소수자일 수도 있다. 따라서 다름을 배경으로 한 타자 또는 소수자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며 이를 바탕으로 한 이주민 서사도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문제는 어떠한 인간관계를 통해 이주민 서사를 운용하는가이다. 나와 다른 타자 또는 소수자를 의미하는 이주민 서사가 ‘나와 그것’의 관계로 운용된다면, 우리는 누구나 막산이가 될 수 있고,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

17) 오정미, 「설화에 대한 다문화적 접근과 문화교육」,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31면.

3.2. 설화 <반쪽이>로 본 ‘나와 너’

설화 <반쪽이>는 ‘반쪽이’, ‘외쪽이’와 같은 이름으로 전국에 널리 전승된 설화이면서 동시에 외국에서도 비슷한 화소가 자주 등장하는 설화중 하나이다. 그만큼 설화 <반쪽이>는 다양한 측면으로 분석되는 설화인데, 특히, 심리학적 접근이 활발한 설화 중 하나이다.¹⁸⁾ 설화 <반쪽이>의 심리학적 연구 중에서 본 연구의 이주민 서사와 궤적을 같이 하는 연구가 있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니드햄은 “반쪽 존재(one sided being)는 집단적 무의식의 표상으로서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모티프의 하나이며, 전 세계적으로 존재한다.” “반쪽 존재는 아웃사이더 혹은 이방인의 조상으로 여겨진다. 아웃사이더에게 괴물 같은 성질이 부여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반쪽 존재는 이승과 저승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한다고 추정된다.”고 하였다.¹⁹⁾

‘반쪽이’를 아웃사이더 혹은 이방인으로 간주한 점은 본 연구자가 반쪽이의 다른 외모와 능력에 주목하여 반쪽이를 집단 공동체에서의 타자로 본 지점과 의미를 같이 한다. 즉 전세계에 존재하는 반쪽이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사는 다름이 강조된 타자, 또 하나의 이주민인 것이다. 설화 <반쪽

18) 김기호, 「반쪽이 설화의 심리적 전이(轉移) 구조와 의미」, 『인문연구』 46,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김용선, 「<반쪽이> 說話 속 ‘新郎 承認’의 樣相 再考-각 편에 내재한 ‘공포-불안-폭력’의 裏面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56, 동아시아고대학회, 2019.

김지연, 「민담 <왼쪽이>의 심리학적 분석」, 『심성연구』 32-2, 한국분석심리학회, 2017.

성정희, 「설화를 활용한 소아기 우울증 아동의 문학치료 사례 연구 : <반쪽이>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하은하, 「정신분열증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접근과 서사지도」, 『문학치료연구』 14,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19) 김지연, 「민담 <왼쪽이>의 심리학적 분석」, 『심성연구』 32-2, 한국분석심리학회, 2017, 140면.

이>의 서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자식이 없는 부부가 기도를 드려 아들 셋을 낳았다.
- 2) 두 아들은 온전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셋째 아들만 반쪽이로 태어났다.
- 3) 장성한 후에, 두 아들들만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
- 4) 반쪽이가 두 아들들을 따라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
- 5) 두 아들들이 반쪽이를 바위에 한번, 나무에 한번씩 묶자, 그때마다 반쪽이가 바위와 나무를 들어서 집에 갔다놓고 다시 따라갔다.
- 6) 두 아들들이 반쪽이를 첩으로 묶어서 호랑이에게 던졌다.
- 7) 반쪽이가 호랑이를 죽여 가족을 벗겼다.
- 8) 부자가 반쪽이의 호랑이 가족을 탐내어 내기를 제안하였다.
- 9) 부자는 내기에 이긴 반쪽이에게 약속대로 딸을 주지 않았다.
- 10) 반쪽이가 피를 내어 부자를 속인 후 딸을 데리고 가서, 딸과 행복하게 살았다.

반쪽이는 가족을 비롯한 사회 공동체에서 다름을 상징하는 타자의 존재이다. 외모의 다름뿐 아니라 능력에서도 완전한 타자이다. 막산이처럼 집단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타자이고 동시에 힘센 장사로서의 특성도 가진 인물이 반쪽이고, 반쪽이는 막산이와 닮아있다.

그러나 반쪽이의 타자적 위치는 막산이와 완전하게 다르다. 상대편과의 관계에서 반쪽이는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주체적으로 내세우며 자신의 다름을 능력으로써 환언하고자 하였다. 형들의 따돌림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였고, 비록 속임수로 다가온 부자에게도 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마지막에 부자를 벌하고 딸과 혼인하여 살아가는 장면도 반쪽이가 사회의 타자로 머물기보다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온 존재를 기울여서 소통하는 ‘나와 너’의 관계가 ‘형들과 반쪽이’ 나아가 ‘사회와 반쪽이’의 관계에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쪽이는 인격적이고 직접적이며 순수한 공동체적 소통 관계²⁰⁾인 ‘나와 너’의 관계이며 문학치료 관점에서 건강한 이주

20) 김진웅, 「마틴 부버의 커뮤니케이션철학: ‘실체론’을 넘어 ‘관계론’으로」, 『커뮤니케

민 서사를 보여준다.

따라서 반쪽이와 막산이가 다른 결말인 것은 그들이 행한 이주민 서사가 달랐기 때문이다. 둘을 둘러싼 사회는 공통적으로 다름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았고 끊임없이 배타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반쪽이는 ‘나와 너’라는 건강한 이주민 서사로 그들과 관계를 맺고자 했고, 그 결과, 자신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승과 저승 사이의 중재자로 본 반쪽이에 대한 니드햄의 해석은 또 하나의 긍정적인 이주민 서사의 면모를 설명해준다. 이승과 저승 사이의 중재자라 함은 신화적 해석이고, 이주민 서사를 가진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이입한다면 그것은 초국적 삶을 의미한다. 초국적 삶이란 하나의 정체성을 넘어서 다양한 정체성을 지향하는 주체적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문화적응을 한 이주민은 공통적으로 초국적 삶을 지향한다. 초국적 삶을 사는 이주민은 자국과 이민국 사이에서 정체성 문제로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양국 문화를 흡수하고 나아가 양국의 리더역할까지 하는데, 이 과정에는 건강한 이주민 서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 추론된다. 따라서 ‘나와 너’의 관계의 이주민 서사는 건강한 자기서사를 의미하며, 건강한 자기서사로 삶을 운영하는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은 초국적 삶을 살아갈 것이다.

다수의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이주민 서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특히, 다문화사회는 이주민 서사가 강하게 작동하는 사회이고,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이주민 서사와 분리되어 살아가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위한 문학치료란 건강한 의미의 ‘나와 너’의 이주민 서사를 제시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4. 결론

이선희 연구』 24-1,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16, 71면.

본 연구는 다문화로 규정된 공동체 속에서 발현되는 유형성 내지 정형성을 지닌 자기서사의 존재를 믿고, 사회 속에서 자신을 타자 또는 소수자로 인식하고 운영하는 ‘이주민 서사’를 제시하였다. 인간관계 속에서 발현하는 문학치료에서의 자기서사도 결국 인간이 처한 사회 및 문화적 환경과 별개일 수 없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까지 발표된 총 9편의 다문화가정 대상의 문학치료 연구에서는 4가지 기초서사영역(자녀서사·남녀서사·부부서사·부모서사)이 직·간접적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분석하고 치료하는 데 적용되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 서사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모든 인간관계, 예컨대,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교우관계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갈등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스트레스, 자존감, 정체성, 문화적응, 심지어 폭력의 기저에도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가진 이주민 서사가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이주민 서사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게만 존재하는 자기서사가 아니고 삶에 부정적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기 자신을 집단 공동체에서 타자 혹은 소수자로 느낀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기서사가 이주민 서사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주민 서사를 내 삶에 운용하는가에 따라 건강한 혹은 건강하지 못한 자기서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건강한 이주민 서사와 건강하지 못한 이주민 서사는 ‘나와 너’ 그리고 ‘나와 그것’이라는 인간의 관계론을 개진한 철학자 마틴 부버(Martin Buber)의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였다. 설화 <막산이>에서 보여주는 막산이와 사람들의 관계는 이용과 목적 즉 수단을 위한 도구의 관계인 ‘나와 그것’의 관계였다. ‘나와 그것’의 관계의 이주민 서사를 가진 막산이는 결국 죽게 되는데,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이주민 서사 때문이다. 반면에 설화 <반쪽이>의 반쪽이는 인격적이고 직접적이며 순수한 공동체적 소통 관계인 ‘나와 너’의 이주민 서사, 즉 건강한 이주민 서사를 운용하였고 그 결과, 혼인하여 행복하

게 살았다. 설화 속 주인공인 막산이와 반쪽이 모두 사회 공동체 속에서 다름을 가진 존재들로, 타자 혹은 소수자의 이주민 서사를 가진 존재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맺기를 하였는가에 따라 이주민 서사가 달라졌고 그들의 삶의 결과가 달라졌다. 이 지점이 문학치료에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위해 모색해야 할 문학치료의 방향일 것이다.

참고문헌

□ 기본 자료

『한국구비문학대계』 9-3

□ 논문 및 단행본

김기호, 「반쪽이 설화의 심리적 전이(轉移) 구조와 의미」, 『인문연구』 46,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김민수, 「다문화 설화작품과 현장적 소통방식의 문학치료학적 활용가능성 : 남녀·부부서사를 대상으로」, 『문학치료연구』 49, 한국문학치료학회, 2018.

김영순·황해영, 「<온달설화>의 서사적 구조를 활용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문학치료 방안 탐색」,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6,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김용선, 「<반쪽이> 說話 속 ‘新郎 承認’의 樣相 再考-각 편에 내재한 ‘ 공포-불안-폭력’의 裏面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56, 동아시아 고대학회, 2019.

김정희, 「부모와의 관계 맺기 방식이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그 문학치료적 의미」, 『문학치료연구』 51, 한국문학치료학회, 2019.

김지연, 「민담 <왼쪽이>의 심리학적 분석」, 『심성연구』 32-2, 한국분석심리학회, 2017.

김진웅, 「마틴 부버의 커뮤니케이션철학: ‘실체론’을 넘어 ‘관계론’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4-1,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16.

마틴 부버(Martin Buber), 표재명 옮김, 『나와 너』, 문예출판사, 2001.

박정은, 「설화 <은혜 깊은 까치>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우울에 대한 문학치료 방안 연구」, 『인문사회 21』 11-3,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

- 술원, 2020.
- 박재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배우자에게 나타나는 편집증적 문제와 설화를 활용한 문학치료 방안」, 『다문화콘텐츠연구』 4-9,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0.
- 박주희·남지숙,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과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청소년연구』 5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 변미희·정은미·정희정·이송이, 「다문화가족 아동의 심리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8-2, 한국부모교육학회, 2011.
- 성정희·박재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우울증에 대한 서사적 이해와 문학치료 방안」, 『통일인문학』 49,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10.
- 성정희, 「설화를 활용한 소아기 우울증 아동의 문학치료 사례 연구 : <반쪽이>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손한결,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안정성과 상호 영향」, 『청소년학연구』 27-12, 한국청소년학회, 2020.
- 신동훈, 「문학치료를 위한 서사 분석 요소와 체계 연구」, 『문학치료연구』 49, 한국문학치료학회, 2018.
- 신영미, 「<만복사저포기>를 활용한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교육 방안 -문학치료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3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 신영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문학치료 활동의 실제 : <바리공주>, <옥상의 만들레꽃>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오정미, 「설화에 대한 다문화적 접근과 문화교육」,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유창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 유형」, 『다문화사회연구』 13-3,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0.
- 장은정,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가족해체 경험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 평화』 11-1,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7.
-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9,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 조은상, 「문학치료에서 자기이해의 필요성과 방법」, 『문학치료연구』 45, 한국문학치료학회, 2017.
- 하은하, 「정신분열증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접근과 서사지도」, 『문학치료연구』 14,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 하은하, 「결혼 이주 여성의 자아존중감 강화를 위한 <내 복에 산다>형 설화의 문학치료적 의미: 베트남 설화집 '영남척괴열전' 소재 <일야택전>과 <서과전>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33, 한국구비문학회, 2011.

논문투고일: 2021.03.14. / 심사완료일자: 2021.04.13. / 게재확정일자: 2021.04.13.

국문초록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문학치료 연구

오 정 미

인간의 관계 속에서 자기서사를 발견하고 건강한 자기서사가 치료의 목표인 문학치료는 다양한 국적과 인종 그리고 문화를 표상하는 다문화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학문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정, 다문화인에서 나오는 ‘다문화’라는 용어에 주목하여,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한국사회와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자기서사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자기 자신을 사회에서의 타자 혹은 소수자의 위치에서 운영하는 이주민 서사를 발견하였다.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한 자녀서사·남녀서사·부부서사·부모서사가 보편적 인간관계 속에서 견인한 문학치료의 자기서사라면 이주민 서사는 다문화로 규정된 공동체 속에서 발현되는 유형성 내지 정형성을 지닌 자기서사이다.

자신을 타자화하는 서사가 강하다면 우리는 누구나 이주민 서사를 가질 수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정 구성원은 한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주민 서사를 자기서사로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혼이주여성 혹은 한국 남편의 부부서사 문제의 심연에는 이주민 서사가 원인으로써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문학치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이 가진 이주민 서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에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인 결혼이주여성, 한국 남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이주민 서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틴 부버(Martin Buber)의 인간의 관계론, ‘나와 그것’과 ‘나와 너’의 이론을 통해 건강하지 못한 방향과 건강한 방향으로 이주민 서사를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설화 <막산이>를 통해 이용과 목적 수단을 위한 도구의 비인격적 관계, 즉 건강하지 못한 이주민 서사인 ‘나와 그것’을 제시하였고, 설화 <반쪽이>를 통해 직접적이며 순수한 인격적 관계, 건강한 이주

민 서사인 ‘나와 너’를 제시하였다.

이주민 서사는 다문화가정 나아가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이주민과 정주민 모두에게 존재할 수 있는 자기서사로, ‘나와 너’의 관계 속 이주민 서사를 통해 문학치료의 지평을 넓히길 기대한다.

주제어: 자기서사, 이주민 서사,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한국 남편, 다문화가정 자녀, 나와 그것, 나와 너, 인간관계

Abstract

Literature Therapy on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Oh, Jung-Mi

Literature therapy, whose goal is to discover and promote healthy story-in-depth of self in human relations, is a particularly critical field of study in a multicultural society. This study closely examined the term 'multi-culture' from the viewpoints of a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families, and multicultural people. It also, examined the story-in-depth of self that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have in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Korean society and found the following: An immigrant epic, in which the self is from the perspective of others or minorities was found. If son-daughter, man-woman, husband-wife, and father-mother epics are story-in-depth of self in literature therapy, an immigrant epic is the story-in-depth of self found in multicultural communities.

If the epic to make one's self be an outsider is strong, anyone can have an immigrant epic. In particular,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cannot help but have such an immigrant epic as a story-in-depth of self in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Korean society. Therefore an immigrant epic can be the primary cause of an immigrant woman's or her husband's psychological issues. It is important for literature therapy on multicultural families to understand their immigrant epic and further examine it against immigrant women, their husbands, and their children.

This study suggested an immigrant epic with healthy and unhealthy

aspects through Martin Buber's Interpersonal Theory ("I-Thou Relations" and "I-It Relations"). It also proposed a non-personal "I-It relation" through the folk tale 'Maksani' and a direct and pure "I-Thou" interpersonal relation through 'Banjjogi.'

An immigrant epic is a story-in-depth of self that can be found in both immigrants and settlers in a multicultural society and a multicultural family. It is anticipated that this study will broaden the scope of literature therapy through an immigrant epic with "I-Thou relations".

Key-Words: Story-in-depth of Self, Immigrant Epic, Multicultural Family, Immigrant Women, Korean Male Husband,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I-It Relations, I-Thou Relations, Human Relations